"먹이 주고 교감하며 동물과 친해져요"

우치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확대

사육사와 먹이주기 10월까지 연장 수의사와 동물원 돌며 이야기 듣기 초등생 겨울방학 동물교실 체험 등 광주시, 생태학습프로그램 다양

우치동물원이 관람객이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교감하고, 사육사·수 의사의 업무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우치동물원이 가을철 관람 성수기를 맞아 관람객들이 동물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먼저 지난 4~5월 봄철에 진행한 '사육사와 함께 먹이주기'가 9~10월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동물과 가장 가까이서 매일 만나는 사육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동물 이야기를 들으며 사슴, 무플론,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게 된다. 별도 참가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함께 하면 된다.

월 1회 '수의사와 함께하는 동물원 체험하기'도 진행된다.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사와 함께 동물원을 돌면서 각동물들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텔링을 듣는 시간이다. 9~11월까지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당 30명씩 총 90명이참가하며, 우치공원 홈페이지(http://

uchipark.gwangju.go.kr)에서 신 청받는다.

올 겨울방학 기간에는 초등학생

40명이 수의사와 사육사를 체험하는 '방 학 동물교실 체험프로그램'도 열린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3년간 어린이들 의 꿈과 추억의 장소였던 우치동물원을 단순 관람을 넘어서 휴식과 생태학습교 육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5월에는 우치동물원을 무료 개방해 시민들이 생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지난 1일 우치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내용이 고시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매년 30억원씩 150억원을 투입해 노후 동물사를 친환경적으로 교체·신축하게 된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육사와 함께 먹이주기, 동물원체험하기, 방학 동물교실등 동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남 우치공원소장은 "동물원의 기능 중 교육 기능과 휴식 기능은 우치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스토리텔링과 체험프로그램은 시민과 어린이에게추억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치동물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다시찾고 싶은 동물원을 만들어 더 친근하게시민 곁으로 다가 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들이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쿠팡' 광주 투자로 일자리 1300개 창출

진곡산단 물류기지 설립등 市와 협약 체결

대표적인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쿠팡'이 광주에 600억원을 투자해 호남권 물 류기지를 건설키로 하면서 이로 인해 생겨날 일자리 수와 질,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쿠팡은 지난 4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시장과 헨리 로우(Hen→ry Low) 쿠팡 수석부사장, 김철균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7년까지 진곡산단 5만3531㎡에 호남권 거점 물류기지를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따라서 이번 협약체결로 생겨날 일자리는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쿠팡의 김철균 부사장은 "물류기지에서 일할 인력이 1000명이고 여기에 배송 시스템이 세팅되면 추가로 300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투자로 총 13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첫 이다고 밝혔다. 또 "쿠팡에는 간접고용을 포함해 종사원이

공무원(5급~9급)

스튜어디스, 영양사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9~49세

29~48세

29~39세

27~42세

25~384

26~47세

26~42세

VIP 희망 여성 🐸

간호사, 회사원

자영업, 가사

'무자녀 남성' 희망

학원(음악)원장, 강사

29~53세 27~63세

32~584

29~48세

35~64M

28~48세

은행원, 연구원

사업가, 자영업

세무사, 연구원

국명기업체 직원

교사, 교수

대(중,소)기업 직원

1만여 명에 달하는데 벤처기업 특성상 대부분 나이가 젊어 50세 이상은 자신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하고 직원 평균 연령대는 30대로 매우 젊 다"고 덧붙였다.

급여 수준과 관련해서 김 부사장은 "평균 연봉이 4000만원 대"라고 말했다.

쿠팡의 광주투자로 인해 생길 일자리와 관련한 김 부사장의 이날 발언에 비춰보면 이번 투자로 광주에는 연봉 4000만원 대의 청년일 자리 1300여 개가 생기는 셈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쿠팡의 소비자를 넘어 파트너로서 일하게 돼 기쁘고, 무엇보다 청년 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며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투자협약식에서 ㈜포 워드밴처스(쿠팡) 헨리 로우 부사장에게 자신 이 직접 지리산 반야봉에서 찍은 사진 '여명' 을 선물했다. /최권일기자 cki@

길고양이 관리한다

광주시, 서·남구 10곳에 급식소

개체 수 조절 '중성화 사업'도

광주시가 길고양이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 중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포획-중성화-방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CCTV가 설치된 화정동 주민센터 등 서구지역 6곳과 백운동 주민센터 등 남구지역 4곳 등 총 10곳에 마련한다. 지역 의 길고양이 사정을 잘 아는 캣맘(길고양이 보 호활동가)이 운영하고, 시는 사료비 등을 지원 한다.

이와 함께 캣맘이 급식소에 형성된 개체군에 대한 중성화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포획 과 방사를 맡는 구역별 집중적인 중성화사업을 실시한다.

길고양이는 도심,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 아가는 개체로,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 외돼 개체수를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성화 사업 뿐이다. /최권일기자 cki@

세계 기후·환경전문가 광주서 박람회

9~11일 국제기후환경산업전…80개 기업 참가 학술교류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제7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참여하는 학술교류와 박람회가 다양하게

먼저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2015 호남권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는 우수 환경산업 체와 환경 분야 청년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채용관, 취업상담관을 운영하고 취업특강을 진행한다.

박람회에는 우수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기업, 환경인증기업 등 8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환경기술 전문인력에 양질의 일 자리를 제공하고 환경산업 고용시장 활성 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 하반기 물관리 심포지엄'에는 전국 상하수도, 수처리 전문가 등이 참가해 국내 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논의할 진행 될 예정이며, '2015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지방의 제21 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도시문 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회가 열 린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의 정점인 습지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전략을 찾아보는 '습 지 생물다양성 포럼'과 지역의 기후산업 특 성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기후서비 스 융합워크숍'은 참관객에게 실생활에서 자연환경을 접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호소수질보전을 위한 선진기술 심포지엄 ▲비점오염관리기술 ▲환경기술 발표회 ▲환경보전포럼 ▲환경기술인 실무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릴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